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④  
(修習止觀坐禪法要)

# 진공무아의 이치 관조 의식을 허공처럼 정화하라

다시 '자정기의(自淨其意)'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부연한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삼계내의 유루견사번뇌를 끝까지 끌어내고 일체법은 그 자체가 진공무아의 이치임을 여실하게 관조해야만 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구계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모습들은 범소유상(凡所有相) 그것은 모두 허망 분별로 떠오른 모습이라네

네 개시허망(皆是虛妄) 가령 허망의 모습 실제상 아남을 본다면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시 여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리 죽견여래(卽見如來)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같은 여실한 이치를 알았다면 모든 행동, 마음가짐, 사물에 있어서 집착심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된다. 이것이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의 무위의 가르침이다.[시제불교(是諸佛敎)]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깨달음의 세계를 알고 싶다면 약인욕식불경계(若人欲識佛境界)

그 의식을 허공처럼 정화하라 당정기의여허공(當淨其意如虛空)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무시이래로 번뇌의 때에 오염되었으므로 반드시 무쇠처럼 견고한 마음으로 번뇌를 끌어 내어낸 그 의식을 청정하게 정화했다고 할 수 있다.[자정기의(自淨其意)]

그렇다면 번뇌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도 지관 수행법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란 무엇인가. 바로 '제약막작'을 말하며 '관'은 '중선불행'이다. 모든 악업을 끊는 것은 열반 사덕(四德)가운데 번뇌를 끊음으로서 이루어지는 단덕(斷德)에 해당하고, 선업을 받들어 행한다 힘은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는 지덕(智德)이며 '지덕'과 '단덕'을 병행하면

단적인 '복'과 지덕인 '지혜'가 함께 원만해 지는데, 이 둘이 끝까지 원만해지면 그를 여래(如來)라고 부른다. 이 같은 여래께 우리는 항상 '귀의불 양족존(歸依佛 兩足尊)'이라고 찬탄하며 고개를 숙이고 귀의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제약막작' 등 사구계는 본 지관 법문의 총체적인 강령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미하게 연구하여 그 이치가 분명하게 드러난 뒤에 직접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이종생사(二種生死)와 그 원인인 흑업(感業)을 끊어야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을 실천수행하여 자리아타락을 원만하게 성취해 일체중생과 모두 함께 성불해야만 한다.

## 總說 2

중생들이 선업을 일으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고득락(離苦得樂)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집착하는 마음으로 유루선업을 일으킨다면 끝내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보가 다하면 다시 악한 세계에 떨어지므로 역시 악업으로 귀결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세간의 십악(十惡)은 말할 것도 없거나 설사 유루선업이라 할지라도 이 모두는 악업을 일으키는 견사이혹(見思二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면 세간십선은 당연히 실천해야겠지만 무루계정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체 모든 선업을 간단없이 정진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중생들이 본래 보리열반이며, 원래 청정한 자체이며, 본래 불생불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무릇 때문에 번뇌에 오염된 중생이 되었을까. 실로 그 이유는 내 마음 진여의 이치가 자체 성질만을 고집스럽게 지키지 않고 [진여불수자성(眞如不守自性)]최초일념이 망상으로 요동하여 오묘하게 밝은 마음의 이치를 등지고 무명번뇌가 되어 본각(本覺)을 미혹함으로써 무명번뇌에 싸인 불각(不覺)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 마음 진여법신(眞如法身)이 육도의 세계로 생사유전하면서 우리의 진실한 성품이 태·란·습·화 사생(四生)에 침

몰하였다. 이로부터 불생불멸하고 청정하기만 한 자성열반법이 생멸에 오염된 갇힌 번뇌가 되어 종일토록 마음이 밖으로 치구하면서 본래 없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어째서든 지혜의 안목으로 중생이 끝없는 생사의 고통을 간단없이 받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을 매우 불쌍하게 여겼다. 그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생사로부터 벗어나 불생불멸하는 열반의 이치를 깨달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불생불멸의 열반이 바로 생멸 속에 있으므로 생멸을 떠난 밖에서야 열반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니원'은 바로 불생불멸하는 열반의 이치다.

부처님은 중생을 열반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그들의 근기와 습성이 한결같지 않다는 점을 간파하셨다. 때문에 일체수행법문을 중생의 근기 따라 설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수많은 지름길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많은 수행길이 있다 해도 최후에 그 근원에 도달하면 그 낱알의 수행 모두가 불생불멸인 열반의 이치를 증득하는 것으로 그 목적지를 삼게 된다.

따라서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사천 수행문 그 모두가 궁극에는 열반실상의 이치를 증득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수많은 수행방편문이 있지만 그 근원에 도달하면 두 갈래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모든 종파의 수행이 이 이치에 있어 선 지관수행을 떠나지 않고 있건만 단지 각개 종파에 따라 명칭과 형식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가령 예를 들면 화엄종에선 법계관을 수행하고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 요체를 삼지만 [관사법계수보현행(觀四法界修普賢行)]그들이 행하는 수행이 근본적으로 사중법계관을 통해서 번뇌를 그친 자리에서 다시 걸림 없는 보현행으로 지혜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지관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정토종에서 행하는 염불수행도 염불을 통해서 모든 번뇌가 쉬고 그 자리에서 관찰대상인 서방 아미타부처님이 더욱 분명하게 떠오른다는 점에서 역시 이 지관의 이치를 염불수행으로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지관'이야말로 모든 수행인들의 궁극의 목표인 열반과 증득하는 가장 뛰어난 길이기 '모든 수행이 지관이라는 두 가지 수행법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중승상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업(業)의 분류 ②

#### (3) 인과관계로서의 업

성질에 따른 행위를 다시 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분류해보면 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인 복업(福業)과 복이 아닌 괴로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성질의 행위인 비복업(非福業).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도 움직임이 없는 결과를 부르는 행위인 부동업(不動業)이 있습니다.

첫째 '복업'은 일상생활에서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착한 성질의 행위에 해당하는 심선업(善業) 등으로 행하면 이는 인간이나 천상의 복스러운 결과를 부르므로 이를 '복을 부르는 행위'라고 합니다.

둘째 '비복업'은 복업과는 반대로 우리의 행위를 악한 성질인 십악업(十惡業)으로 행하면 지옥·아귀·축생의 과보를 받거나 또는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온갖 괴로움의 과보를 부르므로 이런 경우엔 '복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합니다. 셋째 '부동업'은 심선업 이외에 다시 지관법(止觀法)수행을 닦아 이를 통해 색계나 무색계에

#### 선정의 경지 부르는 행위인 부동업

#### 훗날 과보 받지않는 무기업과 달라

서 사선팔경(四禪八境)의 과보를 받으면 복과 복이,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선정의 경지를 '고락(苦樂)에 흔들림이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 말했던 '무기업'과 '부동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기업'은 선업이나 악업과는 달리 훗날의 과보를 받지 않으므로 인과관계의 삼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단지 불러들인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측면에서 '부동업'을 구분했을 뿐입니다.

#### (4)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업

우리가 지은 행위에 따른 인과관계를 다시 시간적으로 고찰했을 때, 그것을 다시 현수업(現受業), 생수업(生受業), 후수업(後受業) 등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 이것을 삼시업(三時業)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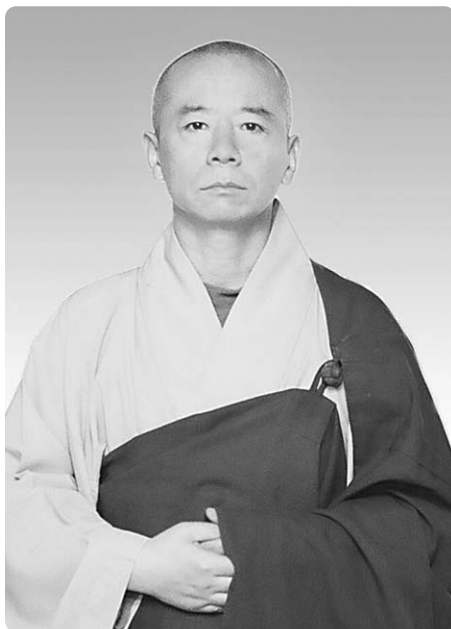
먼저 '현수업'은 현재에서 업을 짓고 목전에서 바로 받는, 즉 금생에 짓고 금생이 끝나기 이전에 그 대가를 치르는 측면에서 이를 현생에 받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수업'은 금생에 행위를 짓고 그에 상응하는 과보는 다음 생에 받는 행위를 말하며 끝으로 '후수업'은 전전 생에 했던 행위의 과보를 후후 다생이 지난 뒤에야 받는, 즉 어느 시기에 과보를 받는지 아직 미정인 상태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張如舟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법法玄玄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법문집의 백미" 서용대종사의 법제자 계산중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서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쁨으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로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